

IT'S TIME TO RIDE

MOTORCYCLE CULTURE MAGAZINE 2024

HARLEY-DAVIDSON®



EDITOR'S NOTE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우리말 ‘안녕’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라는 뜻과 “안녕, 잘 가”라는 뜻이 있죠. 우리는 이걸 구분합니다. 발음이나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오해와 편견을 무수히 생산하는 대화 속에서, 유독 그 어떤 곡해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안녕이라는 말. 그 말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어쩐지 모든 마음에 닿아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할 때 ‘그냥’ 압니다. 안녕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반기는구나, 아 우리는 이제 헤어지는구나 하고요. 누구도 그 말을 다른 뜻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잘못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안녕과 안녕 사이에서 수도 없이 어긋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남겼겠지만, 안녕의 순간엔 우린 모두 이해합니다. 같은 뜻으로 반드시 그 말을 하게 되면서요.

2024년에 태어난 모든 것들 위로 12월의 한기가 이별을 명령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캘린더엔 새롭고 귀엽고 위대한 계획들이 적힙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진해지고 마음에도 빗금이 쳐집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득가득 이 순간을 곱씹어보다 남깁니다.

자, 여러분!
안녕이에요.

2024년에 만난 모든 라이더 여러분에게 안녕을 전하며,
Harley-Davidson®, United We Ride.

HARLEY-DAVIDSON® OF KOREA



홈페이지
www.harley-korea.com

Harley-Davidson® of Korea Magazine
2024 WINTER

통권 43호겨울호 | 정보간행물 | 등록번호 : 용인, 바00026 | 신고일 : 2022년 6월 13일
발행인 : 이계웅 | 편집인 : 변주연 | 편집 : 성현규 | 발행일 : 2024년 12월 18일
발행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05-12
디자인 | 아트디렉터 최은아_디자인바스켓㈜
인쇄 : 대한프린테크 | 가격 : 10,000원
ISSN 2950-9823



CONTENTS

#WINTER

02 EDITOR'S NOTE

04 CONTENTS

06 RIDE RECIPE SEASON 2

: 모터사이클 감성 충전 프로젝트

12 HARLEY® NEWS

16 MOTORCYCLE CULTURE COLUMN

: 이별의 계절을 겸허히 맞아들이는 법

20 HARLEY-DAVIDSON® SHORTS

: 셀럽의 할리데이비슨

24 LEGENDARY MOTORCYCLE

: 아메리칸 투어링의 완성

30 LEGENDARY MOTORCYCLE

: CLASSICS NEVER DIE

36 I AM CUSTOM / PARTS & ACCESSORIES

: 윈드쉴드, 막거나 혹은 흘리거나

40 APPAREL & LICENSING

: HARLEY® HOLIDAYS

42 정비실 이야기

: WHAT MAKES A TOYA WINNER

46 #할리했어오늘도

: 오늘도 내일도 '할리'하며

48 HARLEY® PEOPLE

: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임영만 라이더

IT'S TIME TO RIDE는 항상 라이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IT'S TIME TO RIDE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T'S TIME TO RIDE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마케팅팀 성현규 대리 | E-MAIL: chuck@harley-davidson.co.kr

IT'S TIME TO RIDE를 통해 최고의 광고 효과를 누리보세요!

광고 문의: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마케팅팀 성현규 대리

E-MAIL: chuck@harley-davidson.co.kr | TEL: 070-7405-8457



24



30

CLASSICS NEVER DIE



20

셀럽의 할리데이비슨



36

윈드쉴드, 막거나 혹은 흘리거나



40

HARLEY® HOLIDAYS



12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노홍철 DO!



06

모터사이클 감성 충전 프로젝트



1 더 로드 1423

(강원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23)

따뜻하고 엔틱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라이더 카페 더 로드 1423. 곳곳에 섬세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이런 디테일이 합쳐져 더 로드 1423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곳이다. 겨울엔 화목난로를 피워 놓아 운치가 더해질 예정. 2층에는 다래산 전망이 보이는 넓은 공간도 준비되어 여럿이 라이딩 중 방문해 휴식을 취하기도 적당해 보인다.



모터사이클 감성 충전 프로젝트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photograph 최동수(유튜브 BAFLIX)

백두대간을 달려 강원도로

사계절 언제 가도 아름다운 곳이 있다. 그런 여행지의 특징은 도착지뿐만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번 라이드 레시피에서 소개할 코스도 그렇다. 영월에서 출발해 단양을 거쳐 태백으로 이어지는 길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 자체에 즐거움을 더한다. 사람의 인생을 닮은 여행지, 백두대간을 지나 강원 태백까지 달려보자.



라이딩 코스 안내

- 1 더 로드 1423 : 강원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23
- 2 도담삼봉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
- 3 달동네마늘순대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73
- 4 보발재 :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 5 솔고개소나무 : 강원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81-1
- 6 만항재 :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37
- 7 바람의 언덕 : 강원 태백시 창죽동 9-440



2 도담삼봉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

단양은 아름다운 경치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유명하다. 단양 팔경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 여기, 도담삼봉이다. 도담삼봉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세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섬인데, 가장 높은 가운데 봉우리를 장군봉, 북쪽을 처봉, 남쪽을 첩봉이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도담삼봉에 관한 작품을 남겼고, 정도전은 특히 애정이 남달라 자신의 호인 '삼봉'을 여기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다.



3 달동네마늘순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73)

달동네마늘순대는 단양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에 위치해있다. 맛도 맛있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덕분에 더욱 식욕이 생기는 듯하다. 솔로세트를 주문했다. 큼지막한 순대와 머릿고기가 들어있는 순대국밥과 마늘이 통으로 들어있어 잡내를 잘 잡은 순대가 나왔다.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과 순대의 고소한 향이 잘 어우러진다. 혼자 와도 좋고, 둘이 와도 좋을 곳.



5 솔고개소나무
(강원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81-1)

김삿갓면에서 태백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한눈에 봐도 남다른 이 소나무는 여러 유명한 광고에 등장했던 약 300년 된 그 소나무다. 소나무도 아름답지만, 주변 경관도 보기에 좋다. 옅은 안개가 낀 숲과 소박한 계곡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정갈해지는 기분.

4 보발재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드라이브 명소로 유명한 보발재에 올랐다. 소백산 자락길 6코스이기도 한 보발재는 어느 계절에 와도 아름답다. 봄에는 아름다운 야생화가, 이번에 필자가 방문했던 가을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화려한 단풍이 가득 퍼있었다. 특히 보발재 전망대에 오르면, 소백산 자락의 압도적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좋다.





6 만항재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37)

우리나라에서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만항재다. 해발 1,330m에 위치한 만항재는 사실 가을보다 겨울에 더 유명한 곳이다.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눈꽃은 보고 싶지만 걷기 싫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곳. 꼭대기에 오르면 만항재 쉼터에서 따뜻한 커피와 간식거리를 사 먹을 수 있다.

7 바람의 언덕
(강원 태백시 창죽동 9-440)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의 언덕이란 별명이 붙은 이곳은 ‘매봉산 풍력 발전단지’다. 이렇처럼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동화 속에 있는듯한 기분이 든다. 해발 1,300m의 고지에 드넓게 펼쳐진 고랭지 채소밭 위로 신화적인 존재처럼 우뚝 서 있는 풍력발전기의 거대함이 아름답다. 아래로 펼쳐진 백두대관의 수려한 경관 역시 장관이다. 설산의 풍경 역시 기대가 되는 곳. 도로의 폭이 좁고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 있으니 주의해서 올라가 보자. ☺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노홍철 DO! 토크 콘서트

2024.9.6 FRI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한남점에 할리데이비슨 라이더이자 방송인 노홍철이 방문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바로 무신사와 할리데이비슨 콜라보 제품을 구매한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자가 추첨을 통해 토크 콘서트에 방문했죠. DO! 토크 콘서트는 호스트인 노홍철의 생생한 미국투어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참가자와 호스트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토크가 끝난 후엔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자원자들은 할리데이비슨 뒷좌석에 탑승해 탠덤 라이딩을 즐겼는데요. 모터사이클을 타본 경험이 있는 참가자부터 처음 타보는 참가자까지 모두 즐거운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로망이 있던 한 참가자는 “자유를 상징하는 브랜드인 만큼 행사도 자유롭고 좋았다”며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꿈꿔왔던 할리데이비슨 라이딩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했죠.

HARLEY® NEWS



할리마차, 이번엔 전주입니다.

2024.10.5 SAT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전국에 있는 라이더를 만나기 위해 ‘할리마차’ 이벤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합천에서 진행한 할리마차에 이어서 올해는 전주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 역시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종의 라이더가 모여 할리데이비슨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타보고 싶었던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시승 기회는 타기종 라이더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했죠. 행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의류, 부품 할인 기회 역시 놓칠 수 없죠? 내년에도 할리마차는 찾아갑니다!



제주도에서 맛보는 할리데이비슨, 제주 투어

2024.10.13 SUN
~ 10.16 WED



CVO™ 오너 대상으로 제주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어엔 사전 접수부터 신청자가 몰려 제주도 라이딩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죠.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추천을 통해 선발된 24명의 참가자의 즐거운 추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육지에서 제주도까지 모터사이클 운송을 지원하는 한편, 제주도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맛집과 라이딩 코스 등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마스터 레벨 정비사(최고 등급 정비사)가 동행해 투어가 끝날 때마다 참가자의 모터사이클을 점검 및 정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캐딜락에서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캐딜락은 제주 투어 참가자에게 에스컬레이드와 리릭 차량으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간 행사 운영 차량을 지원하며 제주 투어 참가자에게 프리미엄 경험을 더했죠.



이별의 계절을 겸허히 맞아들이는 법



writer 유주희(서울경제신문 디지털부문 기자)

키우던 고양이 중 한 녀석이 지난 10월 세상을 떠났다. 물어볼
방도는 없지만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은 죽음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한 달 동안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준 녀석에게 참 고맙다. 이 녀석이 이제는 사진 속에만
있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지만 말이다.

공교롭게도 그즈음 나는 꽤 많은 것을 떠날 준비를 하던 중이
었다. 정든 집과 정든 동네를 떠나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그
리고 덩달아 적잖은 익숙한 얼굴들도.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어렵פות이 깨닫던 참이었
다. 그리고 몇 년 전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새로
운 치료제에 자꾸만 내성이 생겨 괴로운 눈치다(이 글을 읽는
남성 독자들은 건강검진센터나 의사의 아무런 언질이 없더
라도 반드시 PSA 수치를 체크하시길 바랄 따름이다). 모든 삶
이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지만 아직 한창인 아버지의 떠남
을 염두에 뒀야 한다는 사실은 아주 낯설게만 느껴진다. 그러
던 와중에 고양이를 보내고 나니 울가울은 무심하게 떨어진
낙엽 같은 이별로 기억되겠다 싶었다.



수년 전 가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가족이나 친구는 아니지만 몇 년을 알고 지냈던 모터사이클 수리점 사장님의 이름이 부고 메시지에 담겨 있었다. 자신의 수리점 바로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겨우 30대의 젊은 나이였다. 새로 산 어드벤처 투어러 모터사이클에 대해 말하던 기쁜 얼굴이 떠올랐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유가족들의 까마득한 고통을 가늠해 보며 마음이 저렸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런 이별을 안겨줘선 안 되겠다 싶기도 했다.

불가항력적인 이별을 몇 번쯤 경험하고 나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바뀌게 된다. 내 앞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대체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것처럼 느껴지던 시기가 있었다. 언짢은 상황이라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고 운명이 나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믿던 시기. 운 좋게 괜찮은 환경에서 태어나 불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도 있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겪다 보면 운명이 내 편이 아닐 가능성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자만에서 멀어지는 한 걸음,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부터의 탈피에 가깝다. 과거의 나는 이러한 변화를 둔해지는 것, 무능하고 무력해지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아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님도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 틀린 생각일 수도, 더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의견을 갖게 될 수도 있겠지만 슬한 고전에서 삶의 파고 앞에 겸허해지는 인간상을 묘사해 온 이유가 조금 이해될 듯도 하다.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강해진다.

세상을 이기려 드는 대신 불가항력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점점 욕심도 줄고 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떠나보내는 것들이 늘었다. 사소하게는 물욕부터 내려놓는 중이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주변에 나눠주거나 중고로 팔고 있다. 멋진 곳에 꼭 가보겠다는 욕심도 하나둘씩 털어내는 중이다. 대신 은근하지만 오래가는 행복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그런 행복은 보통 작고 귀엽다. 동료가 준 쿠키 한 조각, 산책길에 반려견과 대화를 나누던 어느 아저씨의 모습, 언제고 나를 웃게 하는 친구들의 엉뚱했던 한 마디 같은 것들.

이어 안락하고 익숙한 환경과 이별하는 법, 그럼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밀어 넣고 새롭게 배우는 법도 천천히 배워볼 생각이다. 때마침 소셜미디어를 경유해 성악가 조수미의 이야기를 들었다. 40여 년 전 유학을 떠난 그는 새벽 3시에 비 내리는 로마에 홀로 도착했다. 인터넷은커녕 PC통신조차 없던 시절이니 당장 지낼 곳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 아는 사람 은커녕 제대로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타지에서 20대 초반의 조수미는 생각했다. “이거, 일이 재밌게 진행되겠는데?” 이별이 포기는 아니라면서도 가끔 막막해지곤 하는 계절에 마침 필요한 말이었다.

단풍은 곧 스러질 예정이고, 아침 공기는 제법 싸늘하게 불을 감싼다. 곧 다가올 겨울은 라이더들이 모터사이클과 잠시 이별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언제나 이때쯤이면 한동안 가벼운 상실감에 시달리곤 했다. 모터사이클로 출퇴근하지 않는, 투어 일정을 고민하지 않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고 삶의 꽤 큰 조각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서다. 다행히 다년간의 경험상 빈자리는 곧 채워지곤 했다. 고양이도, 좋았던 사람들도, 따뜻한 날들도 떠나보냈으나 또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엔진을 데우게 될 봄날을 기다린다. 

셀럽의 할리데이비슨

writer 이민규 사원(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마케팅팀)



전 세계를 열광시킨 할리데이비슨, 셀럽도 빠져들었다

단순한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넘어 컬트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으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킨 할리데이비슨. 역사상 가장 많은 매니아를 거느리며 이제는 모터사이클 신에서 대체제가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할리데이비슨을 타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또한, 자유와 해방이라는 키워드 아래 수많은 여성의 마음속에도 로망의 불을 지폈다. 이는 전 세계 수많은 셀럽에게도 마찬가지다. 셀럽들이 할리데이비슨을 즐기는 모습, 궁금하지 않은가?



노홍철 (자유와 긍정의 아이콘 노홍철, 할리데이비슨과 만나다)

노홍철이 어떤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재미있는 걸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SNS 프로필 메시지가 그를 대변해 준다. 자유와 긍정 그 자체의 삶을 사는 국내 예능인 노홍철. 현재 가장 핫한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다.

노홍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은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할리데이비슨의 이념과 맞닿았다. 자유로운 영혼 노홍철의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은 브레이크아웃 117이었다. 작년 생일을 맞은 그가 직접 본인에게 줄 선물로 선택한 것. 유난히 돋보이는 오렌지 컬러와 더욱 진보된 밀워키에이트 엔진을 통해 엄청난 힘을 뿜어내는 브레이크아웃 117의 존재감은 노홍철을 충분히 매료시킬 만했다.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라면 누구나 미국 횡단이라는 꿈을 꾸다. 올해로 벌써 두 번의 미국 횡단을 마친 노홍철은 여행을 통해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링 장르에 관심이 생겼던 것일까? 최근 미디어에 업로드된 사진을 통해 새로운 모터사이클, 24년식 ALL-NEW 로드 글라이드와 함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팝스타의 은밀한 취미)

흥겨운 음악에 맞춰 선보이는 유려한 춤선.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팝 아이콘이다. 어린 시절부터 보이 그룹 활동을 거쳐 화려한 솔로 데뷔 이후 배우로서의 성공까지 다재다능한 팝스타로서의 정석을 밝아온 팀버레이크. 그 누구도 그의 은밀한 취미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숨겨졌던 취미는 바로 모터사이클. 그중에서도 그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할리데이비슨이었다. 데뷔 이전부터 모터사이클을 좋아했던 그는 데뷔 후 대중과 언론의 눈을 피해 남몰래 모터사이클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파파라치들의 집요함은 그의 취미를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만들었다. 이후 2013년, 그의 열렬한 할리데이비슨 사랑은 할리데이비슨과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며 할리데이비슨 디자이너와 함께 그의 이름이 새겨진 커스텀 모터사이클을 제작하였다.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로서 연에게 내의 입지를 다진 팀버레이크. 그 누구도 섹시한 팝 아이콘이 헬멧을 쓰고 할리데이비슨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뮤직비디오 및 공연에서도 직접 모터사이클 스텐트를 선보이며 할리데이비슨과 모터사이클 문화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제이슨 모모아 (진정한 성덕)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아는가? 여기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현한 배우가 있다. 진한 남자의 향을 품은 마초, 제이슨 모모아다. 그는 어릴 적 가족 모임을 통해 할리데이비슨을 처음 마주했다.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에 매료된 모모아는 그 이후로 꾸준히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한다. 이후 19살이 되던 날, 그의 첫 모터사이클, 1956년식 빈티지 할리데이비슨을 가지게 된다.

외할머니의 이름을 따 ‘메이블’이라는 이름을 붙인 첫 모터사이클부터 다양한 빈티지 할리데이비슨과 함께한 그느 라이브와이어, 팬 아메리카 1250 스페셜까지 보유한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할리데이비슨 매니아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그가 직접 각본과 출연을 맡은 ‘Road to Paloma’(2014)에 ‘메이블’과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런 그의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최근 그는 할리데이비슨과 함께 ‘On the Roam’(2024)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했고, 이후 협업 의류 컬렉션까지 발매하며 진정한 성덕(성공한 덕후)이 되었다.



이시영 (팻보이 위의 여전사, 배우 이시영)

할리데이비슨 팻보이를 상상해 보라.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두꺼운 프론트 포크와 광폭 타이어, 그리고 크롬으로 마감된 트림을 갖춘 팻보이는 강인함 그 자체일 것이다.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함께 터미네이터 2에 등장하며 전 세계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모터사이클. 그렇게 팻보이는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다.

배우 이시영, 그녀는 팻보이 114를 타는 라이더이다. 데뷔 이후 아마추어 복싱 선수에 도전하며 국가대표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던 이시영. 가장 최근에는 넷플릭스 글로벌 화제작 스위트홈에서 또다시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단순한 여배우를 넘어 근성과 승리욕을 갖춘 한국 ‘여전사’의 새로운 상을 제시한 아이콘이 되었다. 강인함의 상징인 팻보이 114와 이시영의 만남, 어찌면 당연한 조합일 수밖에 없다.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리는 팻보이와 이시영을 본다면 그 누구든 시선을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관통한 할리데이비슨. 단순한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넘어 유일무이한 문화를 탄생시켰다.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라면 그가 유명 인사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할리데이비슨을 사랑하는 우리는 모두 형제이며 모터사이클 문화를 아끼는 라이더라는 것이다.

언젠가 라이딩 혹은 장거리 투어를 떠나는 중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셀럽을 마주칠 지도 모른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가움에 큰 액션을 취하는 것은 자제 바란다. 그저 가볍게 바이커 웨이브를 날려주도록 하자. 그들도 같은 할리데이비슨 라이더의 마음으로 화답할 것이니.

끝으로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는 모두가 하나. United We Ride. 



LEGENDARY MOTORCYCLE

아메리칸 투어링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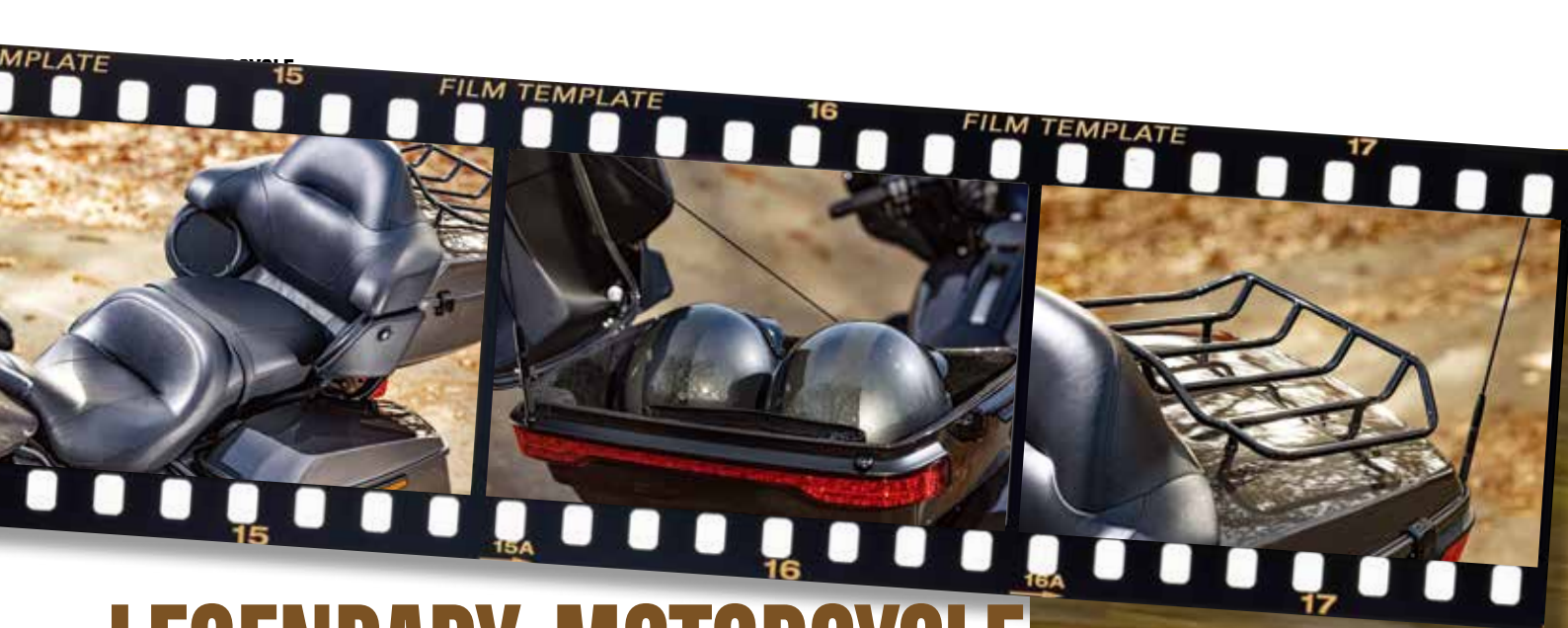
할리데이비슨 울트라 리미티드는 첫인상부터 강렬하다. 전면은 배트윙 페어링과 아래쪽은 레그실드로 감싸 바람 셀 곳 없이 커버하고, 뒤는 넉넉한 투어팩(Tour-Pak)을 두르고 있다. 이 바이크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바로 '두 사람을 위한 완벽한 모터사이클 투어링'이다.

writer 양현용(월간모터바이크 편집장)
photographer 월간모터바이크 편집부



영상으로 살펴보기

FILM TEMPLATE 17
HARLEY-DAVIDSON®
ULTRA LIMITED™



LEGENDARY MOTORCYCLE



울트라 리미티드의 풀네임은 일렉트라 글라이드 울트라 리미티드다.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중 가장 호화로운 옵션의 기함이다. 원래는 더욱 간결한 구성의 울트라 클래식이 있고 리미티드는 옵션이 더해진 상위모델이었지만 투어링 라인업을 간소화하며 현재는 울트라 리미티드만 남았다. 어떠한 풍경 속에 있어도 위압감을 잃지 않는 디자인은 할리데이비슨 투어링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메리칸 투어링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

현재의 외형이 완성된 것은 2013년 프로젝트 러시모어를 통해서다. 당시 창립 110주년을 기념해 수많은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들의 요구를 듣고 차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울트라 리미티드의 완성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며 최신 전자장비가 더해지고 밀워키 에이트 엔진으로의

변화했으며 114큐빅인치(1,868cc)까지 배기량을 키웠다. 사용자에 집중해 다듬어 온 만큼 차량의 완성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모습만 봐도 짐작할 수 있지만 라이더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1,000km 이상 달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장거리에 특화된 투어링 모델이다.

시트에 올라타는 순간, 울트라 리미티드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다. 엉덩이 라인을 감싸는 폭신한 시트는 접촉면의 무게를 분산시켜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자연스럽게 취해지는 포지션은 바이크를 다루는 데 필요한 만큼만 몸을 쓰게 만든다. 크루저 특유의 과장된 포지션과는 다르게 투어러의 정석에 가까운 포지션이다.

두 사람을 위한 투어링

하지만 울트라 리미티드의 진짜 중요한 차별점은 동승자 시트에서 시작된다. 시트가 넓고 폭신한 것은 기본이고 등받이와 팔걸이(옵션)까지 갖추고 있어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같은 투어링 패밀리에 속해있지만, 라이더의 즐거움에 올인 한 스트리트 글라이드와 비교하면 뒷자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의 차이가 크다. 단순히 등받이 유무의 문제가 아닌 서스펜션, 새시의 세팅, 공기역학, 시트 쿠션까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울트라 리미티드를 쇼퍼드리븐(Chauffeur-driven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용 차량을 의미) 모터사이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혼자자 아닌 둘이 즐길 때 더 매력적인 바이크가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여행 짐을 싣기 부족함이 없는 132리터의 수납공간도 편안함을 더한다. 큼직한 투어팩은 헬멧 두 개를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어 두 사람 모두 여행지에서 헬멧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투어팩 위에는 짐을 묶을 수 있는 짐대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 캠핑, 낚시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짐도 소화할 수 있다. 한 손으로 가볍게 여단을 수 있는 사이드 케이스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도 가볍게 여단을 수 있어 더 유용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투어를 즐기는 데는 이만한 바이크가 없다. 탠덤 경력 15년이 넘으며 지금까지 수 십대의 바이크 뒷자리를 경험해 본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울트라 리미티드를 탈 때의 주행이 가장 부드러웠다고 한다.



울트라 리미티드의 무게는 415kg이 넘는다. 요즘 스포츠 바이크 두 대에 달하는 무게이며 성인 남성의 체중을 기준으로 해도 4~5 배를 훌쩍 넘는다. 큼직한 차체에 이 무게까지 더해지면 라이더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드는 게 당연하달까? 무게가 무거우면 성능 면에서 불리하고 바이크를 끌고 당기는 데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울트라 리미티드를 선택하는데 허들을 높인다. 하지만 울트라 리미티드를 실제로 타보면 놀랄 만큼 다루기 쉽다. 차체의 절묘한 밸런스로 적은 힘으로도 큰 무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모든 바이크는 완벽히 균형을 잡고 있을 때는 바이크에 힘을 줄 필요가 없다. 단지 균형이 틀어진 만큼 다시 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힘이 필요할 뿐이다. 하지만 울트라 리미티드는 차체가 묵직한 만큼 그 중심이 흔들리는 폭이 작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오히려 수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바퀴가 돌아가고 나면 더 극대화되 되며 완벽한 안정감을 준다. 여기에 차체의 무게를 가볍게 이겨내는 강력한 엔진이 조합되니

사뿐사뿐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묵직한 차체에서 만들어지는 압도적인 승차감은 이 무게의 가치를 바로 납득시켜 준다. 노면의 작은 요철, 산들바람 정도로는 이 거대한 차체를 흔들지 못한다. 높은 중량이 높은 관성을 가지는 것은 과학이니까. 이건 일반적인 모터사이클에서 경험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감각이다. 제아무리 고급 서스펜션의 힘을 빌린들 200kg 남짓의 바이크라면 이런 주행 감각은 만들 수 없다.

매끄럽고 강력하다

밀워키에이트 114 엔진의 부드러운 출력과 여유로운 토크는 매 순간 돋보인다. 엔진이 느릿느릿 돌아감에도 한방 한방의 두툼한 토크는 노면을 성큼성큼 뒤로 밀어젖힌다, 이 느낌은 완벽히 할리데이비슨만의 것이다. 빠른 가속을 위해 엔진의 회전수를 올려도 불쾌한 진동은 전달되지 않는다. 엔진의 밸런서가 피스톤의 진동을 상쇄시키고 러버마운트는 더 세밀한 진동 걸러주기 때문이다.

라이더에게는 빅트윈 특유의 굵직한 고동감만 전달된다. 진동이 줄어든 만큼 엔진의 전반적인 박력은 구형에 비해 조금 줄었다.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투어링 모델에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된다.

최신 기술로 완성된 클래식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BOOM!™ Box GTS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음질이 뛰어난 4개의 스피커는 라이딩 중에도 선명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한다. 또한 리플렉스 디펜시브 라이더 시스템RDRS가 적용되었다. 기울임을 감지하는 코너링 ABS와 코너링 트랙션 콘트롤, 언덕 출발 시 밀림을 방지하는 힐홀드 컨트롤, 과도한 엔진브레이크가 차체의 균형을 흐트러트리 는 것을 방지하는 드래드 토크 슬립 컨트롤 등 최신 전자장비가 모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능들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뽐내는 일 없이 차체를 늘 안정적으

로 유지시켜준다. 완벽해 보이는 울트라 리미티드에게도 단점도 존재한다. 시내 주행이나 정체 구간에서는 절대적인 크기와 무게가 부담이 된다. 좁은 공간에서의 유턴이나 주차는 숙련된 라이더에게도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은 울트라 리미티드의 주된 무대가 장거리 투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완벽한 여정을 위해

할리데이비슨 울트라 리미티드는 더 나은 모터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출력을 더 하고, 편의장비를 더하고, 전자장비를 더하는 등 빈 곳을 채우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갖춘 뒤 라이딩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덜어내는 것이 울트라 리미티드 다운 접근법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완벽한 투어링을 즐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울트라 리미티드와 함께라면 길 위에서의 모든 순간이 특별해질 것이다. 승

CLASSICS NEVER DIE

HARLEY-DAVIDSON® HERITAGE CLASSIC

writer 김남구(바이크즈랩 기자)

photographer 김진영



LEGENDARY
MOTORCYCLE



영상으로 살펴보기

고백한다. 필자는 클래식을 좋아한다. 요즘은 유행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유행은 너무 쉽게 변한다. 하지만 클래식은 다르다. 클래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클래식은 근본이기 때문이다. 클래식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유지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지금도 클래식에 열광한다. 음악, 미술, 의류,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래식의 위상은 굳건하다. 모터사이클도 그렇다.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활용하고 있다. 할리데이비슨에서 가장 클래식한 모델은 헤리티지 클래식 114다. 이번 글에서 소개할 모터사이클이다. 현재 라인업에서 가장 클래식한 할리데이비슨, 아메리칸 크루저의 원형에 근접한 모델, 헤리티지 클래식 114를 소개한다.

LEGENDARY MOTORCYCLE

박물관이 살아있다

클래식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희소성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박물관에서야 구경할 수 있는 바이크를 타고 다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큰 기회다. 단, 그러려면 정통성을 제대로 계승해야 하는데, 헤리티지 클래식 114는 그렇게 했다.

모티브가 되는 모델은 FL 하이dra 글라이드(1956). FL 하이dra 글라이드는 현재의 CVO™와 비슷한 콘셉트로 출시됐다. 출고 상태부터 다양한 파츠를 장착한 것이 공장형 커스텀 모델인 것이다. FL 하이dra 글라이드를 자세히 살펴보자. 플라스틱 새들백, 러기지랙, 윈드 스크린 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원래는 옵션으로 장착해야 하는 파츠들이다. 각 파츠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드 타입 새들백은 금속으로 멋을 냈다. 러기지랙의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윈드 스크린은 큼직한 크기의 방패 모양이다. 모음 ‘π’자 모양의 프레임이 눈에 띈다.



FL 하이dra 글라이드의 디자인은 헤리티지 클래식 114에도 일정 부분 계승됐다. 새들백은 가죽 가방 같아 보이지만, 방수가 되는 하드 타입이다. 새들백의 징 장식은 복고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용량은 43리터로 헬멧 수납은 어렵지만,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넣기에 적당하다. 새들백은 키를 통해 잠글 수도 있다. 윈드 스크린은 1956 FL의 것과 모양새가 비슷하다. 하단은 블랙, 상단은 클리어 타입으로 디자인했다. 앞뒤 16인치 스포크 휠은 커다란 크기의 팬더가 감싼다. 팬더 끝은 크롬 장식으로 마감했다. 또한 ‘Heritage’ 엠블럼이 필기체로 새겨졌다. 헤드라이트 양옆으로는 안개등이 추가됐다. 모두 LED 타입이다. 덕분에 야간 라이딩 시 광량이 부족할 일은 없겠다. 튜닝에 대한 수고로움도 덜 수 있는 설정이다.

머플러는 배기구가 2개인 듀얼 타입이다. 다만, 넓어졌다 좁아지는 엔드 디자인이 정석에 가까운 형태라 이 역시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긴다. 매니폴드, 머플러를 비롯해 차체 곳곳은 크롬으로 마감했다. 시트에 앉아 보면 연료 탱크 상단에 가죽 스크랩이 눈에 들어온다. 새들백, 시트와 더불어 이곳에도 징 장식이 있다. 적당히 마초적이고 적당히 멋을 부린 느낌이다. 헤리티지 클래식 114는 총 일곱 가지의 다채로운 색상으로 출시된다. 시승차는 레드 & 블랙 컬러로 연료탱크와 팬더가 투톤으로 칠해졌다. 이밖에 그레이 색상은 밝은 톤의 회색과 크롬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장 화려한 모습을 자랑한다. 가장 클래식한 컬러로는 블랙을 추천한다.



밀워키에이트 114 엔진

LEGENDARY
MOTORCYCLE

옛것의 푸근함

전반적인 라이딩 포지션과 시승감에서도 클래식한 감성은 이어진다. 시트는 말안장 같이 가운데가 폭 파여 있다. 크기가 넉넉할 뿐만 아니라 쿠션감도 매우 좋다. 리어 서스펜션이 걸러준 충격을 시트가 한 번 더 상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시트고는 680mm로 매우 낮은 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이 잘 안 닿을 걱정은 없겠다. 스텝은 발바닥 전체를 올려둘 수 있는 플로어 보드 형태다. 주행 시 발을 올려 두면 안정감이 있고 편하기도 하다. 핸들바의 높이는 라이더의 어깨보다 약간 낮다. 핸들바 그립 쪽이 운전자 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형태라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연출된다.

윈드 스크린은 방풍 성능이 상당하다. 177cm 라이더 기준, 착석 시 윈드 스크린 끝이 코췌에 걸린다. 상체로 오는 바람은 모두 막

아주고 머리 쪽으로 오는 바람도 50%가량 줄어든 느낌이다. 윈드 스크린 옆으로 들이치는 바람이 있기에 주행풍을 적당히 즐길 수 있다. 윈드 스크린은 탈착이 가능해 때에 따라 제거할 수도 있다.

탑 브릿지에는 계기반 대신 할리데이비슨 로고 장식이 추가됐다. 계기반은 연료 탱크 상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에는 계기반을 보기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시승해 보니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동자만 옮겨도 주행 정보가 잘 보인다. 속도, RPM, 기어 단수 등 필수적인 정보 위주로 디스플레이를 구성한 까닭이다.

할리데이비슨은 현재 밀워키 에이트 107, 114, 117 엔진 등을 다양한 기종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 엔진들은 소폭의 배기량 차이가 있지만 특성은 비슷하다. 회전 한계가 낮고 저 RPM에서 발휘

되는 토크가 일품이다. 특성은 유사하지만 신기하게도 기종마다 느껴지는 시승 질감은 미묘하게 다르다. 기종마다 차량 구성이나 라이딩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이다.

밀워키 에이트 114 엔진이 헤리티지 클래식에서는 더욱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헤리티지 클래식의 각 파츠는 무엇보다 편안함을 염두에 두었다. 앞서 설명한 윈드 스크린, 플로어 보드, 핸들바, 시트 등이 그렇다. 전반적으로 편안한 설정 덕에 라이더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너그러워진다. 시트 앞에 바짝 당겨 앉아 속도를 내기보다는, 힘을 빼고 느긋하게 앉아 V트윈의 박동에 집중하게 된다. 단, 스로틀을 전개하면 얼마든지 치고 나갈 힘이 있기에 여유로움이 있다. 앞뒤 브레이크의 제동력도 나쁘지 않아서 고속 크루징도 가능하다. 특히 리어 브레이크의 성능이 출중해 급정거 시에는 꼭 리어 브레이크도 함께 잡는 것을 권장한다.

클래식 네버 다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렸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 낙엽들 위로 눈이 쌓인다. 가을이 묻히고 겨울이 내린다. 이렇듯 시간은 흐른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변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클래식이 그렇다. 클래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본체를 유지한다. 시간이 갈수록 원형(原型)의 향은 그윽해진다. 음악도, 미술도, 옷도, 모터사이클도, 클래식의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클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재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헤리티지 클래식 114는 클래식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잘 어울리겠다. 오래된 것들에 대한 동경과 존경이 있다면 헤리티지 클래식 114를 추천한다. 더불어 먼 곳으로 여행을 자주 떠나는 장거리 라이더에게도 헤리티지 클래식 114를 추천하고 싶다. < >





윈드쉴드, 막거나 혹은 흘리거나

바람을 맞으면 달릴 수 있다는 것은 라이더만의 특권이다. 함께하기도 하지만 때론 맞서야만 하는 이 바람, 즉 주행풍은 라이딩을 더 즐겁게 해줄 때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무엇이든 과하면 안 된다고나 할까, 적당할 때는 우리가 바이크를 타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즐거운 이유지만 과하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writer 최홍준(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엔진을 달고 움직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효율을 위해서 공기역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공기 저항을 줄여 효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물론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기능성을 떨어트리지 않고서 말이다. 극단적인 성능을 추구하는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부터 공기역학을 생각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디자인으로 또는 미래의 디자인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능과 역할에 의해 변해가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마 이 글을 읽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효율보다는 처음 만들어졌던 그 이미지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할리데이비슨의 바이크는 처음 두 바퀴에 엔진이 달려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기능을 위해 구성된 요소를 디자인 장치로 유지해 왔다. 엔진과 프레임, 서스펜션과 핸들 그리고 헤드라이트 등의 형태들이 디테일한 디자인은 조금씩 변해왔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그게 매력이고 또 그게 우리가 타고 있는 이유이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타일에 대한 고집은 해결책을 낳았으니 그것이 바로 공기역학을 이용한 윈드 쉴드다.

그렇다고 모든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에 윈드 쉴드가 달려있는 건 아니다. 투어링 모델 위주로 장시간 주행에 필요한 기능으로 선택이 되어 진다. 특히 윈드 쉴드는 페어링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포티하게 달리도록 만들어진 모델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취향에 따라서 편의성을 위해 옵션으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투어링의 특권

순정 상태로 윈드 실드와 페어링이 함께 달려있는 현행 할리데이비슨 모델은 로드킹 스페셜을 제외한 모든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링 패밀리와 로우라이더 ST 등이다. 장거리 주행을 염두에 둔 모델들이기 때문에 라이더에게 전해지는 주행풍을 최소화해 피로를 덜기 위한 설정이다. 특히 핸들바와 헤드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페어링은 상체로 오는 거의 모든 주행풍을 걸러낸다. 하지만 윈드 실드의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다. 평균 신장의 라이더라면 어깨 이상부터는 적당한 바람을 맞게 해 놓았는데 이는 할리데이비슨의 설정이다. 장시간 가슴이나 배로 오는 강한 주행풍을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상체에 부담감을 줘서 피로도가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리면 모터사이클만의 개방감이 적어진다. 때문에 적당히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짧은 윈드 실드를 통해 적당한 바람을 흘려준다.

라이더의 신장에 따라서 느끼는 높이 차이가 있으므로 순정 옵션으로 다양한 높이의 윈드 실드도 제공되고 있다.

현행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중 흔히 생각하는 거대한 방패 모양의 윈드 실드를 가진 모델은 헤리티지 클래식이 유일하다. 별도의 페어링 없이 윈드 실드만으로 구성된 디자인으로, 이름처럼 전통적이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실드만 존재한다. 이 윈드 실드는 헤리티지 클래식의 아이덴티티이며 대륙을 횡단하던 오리지널 할리데이비슨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오해와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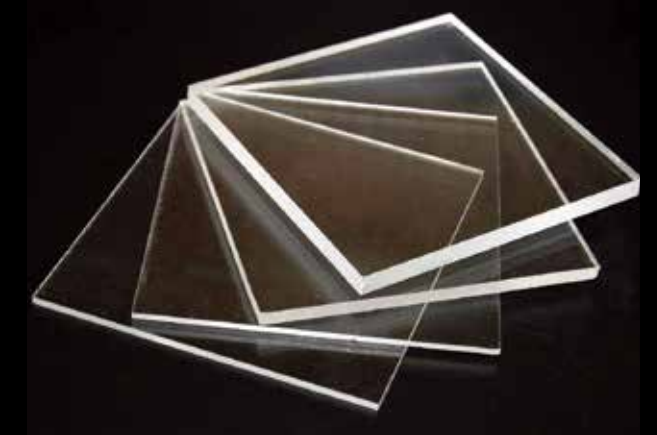
윈드 실드는 주행풍을 정면으로 막아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모터사이클은 속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그 저항은 고스란히 모터사이클과 라이더에게 온다. 모터사이클은 바람을 이겨낼 충분한 힘이 있지만 그대로 맞서지 않고 주행풍을 이용한다. 특히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공냉 엔진은 엔진의 냉각을 위해 절대적으로 주행풍이 필요하다. 공냉 엔진 모터사이클을 정지 상태로 오래 예열을 하면 엔진 컨디션이 나빠진다. 공냉 엔진은 달리면서 맞는 바람으로 냉각을 하기 때문에 냉각핀이 돌출되어 있고 바이크 자체의 디자인도 적극적으로 주행풍이 엔진쪽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페어링이 달려있는 투어링 모델의 경우에도 정면에서 봤을 때 엔진 쪽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다.

주행풍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면서 적절히 이용을 할까, 그것이 바로 공기역학이다. 무조건적으로 주행풍을 막아내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저항이 강해져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고 설계가 잘못되면 와류가 생겨 라이더를 더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저항은 핸들링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적절한 각도와 높이 그리고 폭으로 만들어져야 거대한 공기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틈을 내서 뚫고 지나가며 흘러보내는 것이다. 단순히 바람을 막기 위해서 대충 세워 놓은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

윈드 실드는 주로 폴리카보네이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혼합 물질로 만들어진다. 강도가 높지만 너무 단단해서 부러져서는 안 되고 충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지만 결코 바람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쉽게 생각하면 구부러지지 않고 잘 버티줘야 형태도 유지하면서 기능을 잘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연성이 더 중요하다. 충격을 받으면 휘거나 움직여야 한다. 절대 부러지거나 깨지면 안 된다. 바로 안전 때문이다. 윈드 실드는 헬멧의 실드나 고글처럼 이른바 방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총알도 뚫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부드러워서이다. 완충작용으로 충격을 튕겨 내거나 부드럽게 흘려버린다. 그것이 좋은 윈드 실드의 포인트이다. 불의의 사고시 깨어져 버린다면 라이더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는 저렴한 사제 파츠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알려진 사외품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윈드 실드를 만들고 있지만 제조사만큼 엄격한 안전규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순정 파츠를 써야 하는 이유이다. 좋은 윈드 실드는 달릴때에도 만일의 사고에서도 라이더를 보호해 주어야만 한다. 그것이 윈드 실드를 비롯한 모든 파츠들의 존재 이유이다. < >



HARLEY® HOLIDAYS



WHISKEY LONELINESS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photographer 이진화(이지도르)
model 성현규 대리, 이민규 사원(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마케팅팀)

HEARTY JOU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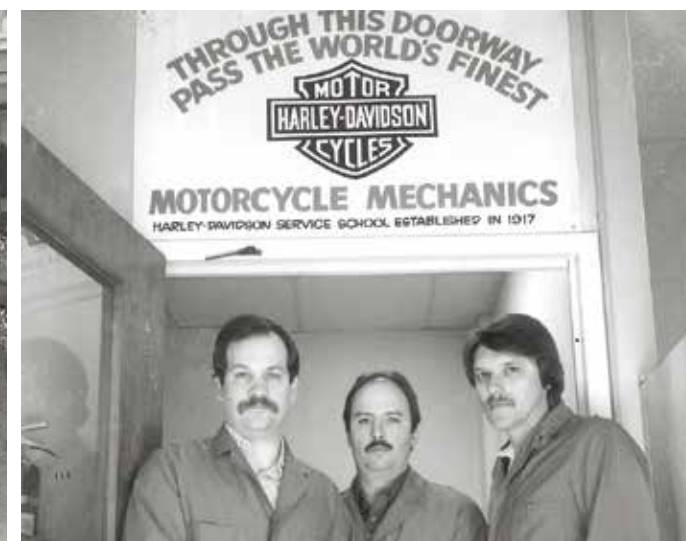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점 홍성규 사원

2024 Harley-Davidson® Technician of the Year(이하 TOYA) 우승자, 바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점의 홍성규 사원이다. TOYA는 교육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전세계 할리데이비슨 정비사가 경쟁하는 프로그램인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할리데이비슨 정비사 교육 프로그램이 머물러 있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 오랜 정비사 육성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정비사 홍성규 사원을 만나보자.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WHAT MAKES A TOYA WINNER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2월부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점 테크니션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정비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7년을 근무했죠. 원래 근무하던 담당자를 대신해서 수송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전역을 하고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점에서 테크니션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원래 모터사이클을 좋아해서 정비사로 입사하게 되신 걸까요? 직업군인으로 근무할 때, 같은 사무실에 있던 동료가 모터사이클 라이더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당시 동료는 자동차 정비를 한 경험을 살려 모터사이클 정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전역 후 살펴보니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용인점에서 정비사를 채용하고 있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2종 소형 면허는 원래 있던 건 아니고 입사를 하면서 따게 됐습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되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공도 경험해보셨나요? (웃음) 아직까지 제공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매 순간 집중해서 타고 있어요. 모터사이클은 로얄엔필드 메테오 350으로 입문해서 현재는 로우 라이더 ST를 타고 있습니다. 두 기종 모두 확실한 매력이 있는 모터사이클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경력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사실 처음부터 능숙하게 모터사이클 정비를 해내는 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툴을 잡는 방법이나, 모터사이클 부품들을 장착하는 시퀀셜(순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죠. 이것만 해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비하기 어려웠던 케이스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주세요. 최근에 일렉트라 글라이드 폴리스(일명 싸이카)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엔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해본 수리였죠. 다른 부위를 수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은데 처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수리를 담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매뉴얼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할리데이비슨 정비 매뉴얼은 오랜 시간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만 잘 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해당 모터사이클은 엔진과

미션 사이에 오일 누유가 있었습니다. 가스켓 부위에서 누유를 발견하고 가스켓 교환 후 엔진을 재조립했죠. 물론, 작업이 끝난 후에 선배 정비사들의 확인과 정까지 꼼꼼히 마치고 출고했습니다. 처음 하는 작업이라 까다로웠지만, 매뉴얼과 선배 정비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없습니다. 최근에 09년식 울트라 리미티드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CAN 통신을 쓰지만 해당 모터사이클은 통신선이 하나하나 따로 들어가 있는 까다로운 모델이었죠. 하지만 오래된 모터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된 매뉴얼을 찾아보니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구형 모터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더 생겼습니다. 생소한 방식으로 시동이 걸리고, 스피커, 턴 시그널 등이 작동하는 모터사이클이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TOYA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우승하게 된 비결이 있을까요? TOYA는 다양한 부분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멘토링과 교육 성적, 과제 등에서 평가를 받죠. 사실 우승을 해야겠다는 일념보다는 교육과정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정비사에게 요구되는 교육 과정은 상징적이거나 명분만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업무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 또한 TOYA에 우승하기보단 업무를 잘하고 싶어서 교육 과정에 집중했고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올해 TOYA엔 과제가 추가되고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게 많아져 더욱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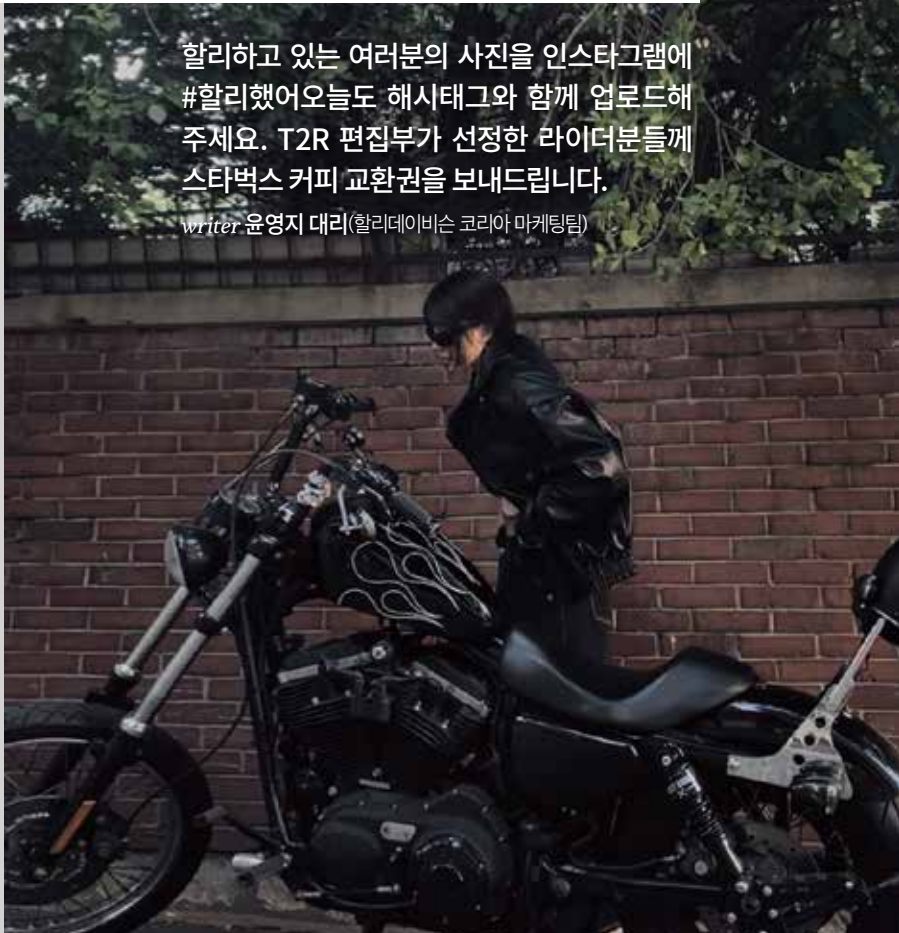
일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저의 목표는 고객에게 기분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터사이클을 탈 때 느껴지는자유로움을 좋아합니다. 고객분들도 그 자유로움을 마음껏 즐기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모터사이클을 즐기기 위해선 그걸 마음놓고 탈 수 있어야 하죠. 고객이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에 안심하고, 그래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



#할리했어오늘도

할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할리했어오늘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주세요. T2R 편집부가 선정한 라이더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Writer 윤영지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마케팅팀)



윤예린 (@yaaaaae_lin) #재활 트레이너#Forty-Eight™

Q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된 계기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는 할리데이비슨 라이더셨어요. 그 영향인지 학창 시절에 친구들 부모님이 차로 학교를 데려다 줄 때 저는 아버지 뒤에 탕뎀으로 학교를 등교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왜 조용하고 편한 차로 데려다주시 않고 시끄럽고 무서운 모터사이클로 데려다주냐고 투덜뎀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엔 몸집도 작고 어려서 풍경을 보기보다 아버지 등에 얼굴을 파묻고 배기음 소리에 귀를 막고 탕뎀 했던 기억이 있네요. 원래는 안정적이고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

내고 소중한 사람을 한 명 더 떠나보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 사람 인생은 새옹지마인데 왜 내가 현재를 살려 하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문득 아버지께서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궁금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그렇지만 무섭기만 했던 모터사이클이지만 제가 아버지 입장이 되어서 핸들을 잡고 달릴 때면 ‘아 ~ 아버지께서 이런 낭만을 느끼고 즐기셨구나, 그 기분을 나와 나누고 싶었던 것이구나.’를 느낍니다. 잠시나마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할리데이비슨 라이더의 느낌을 느끼는 순간이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벅차고 감

회가 새롭습니다.

Q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모터사이클을 타지 않았다면 몰랐을 소중한 인연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하루하루 라이딩하며 먼 훗날 돌아보면 한 장의 추억이 될 어느 날의 소중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모터사이클도 많이 타봤지만, 노래를 듣지 않아도 할리데이비슨의 특유 배기음과 고동감만으로 낭만 있는 질주를 할 수 있어서 가끔은 노래 없이도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할리데이비슨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최애의 계절인 여름에 내 모터사이클을 배에 싣고 제주도에 가서 수영복 위에 겹옷을 걸치고, 시시바에 스노클링 장비와 오리발을 감고 목 적지 없이 달리다가 맘에 드는 바다에 세워놓고 그대로 입수해서 놀고 다시 그대로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몸과 머리를 말리며 라이딩하기. 사실 제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단순히 모터사이클을 제주도에서 타고 싶기보다 태어났던 곳인 제 고향 아름다운 섬 제주 동서남북을 렌트가 아닌 제 모터사이클로 낭만 라이딩을 해보고 싶다는 버킷 리스트가 있습니다.

Q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자주 하는 말은? 하고 짬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붙여진 별명인데 거기에 모터사이클도 포함이에요. 다들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한 번 사는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가 제 마인드라 하루하루를 최고의 날로 기억되게 만드는 모터사이클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Q 나에게 있어 할리란? 사실 목적지가 정해지면 목적지만 보고 달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모터사이클을 탈 때는 목적지가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달리고 있는 순간 자체에 더욱 의미가 있고, 그때 힐링을 정말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할리를 타고 달릴 때만큼은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할리데이비슨이란 타임머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된 계기는? 2010년경 우연히 인터넷에서 아이언 883 광고 영상을 보고 반해서 어머니께 돈을 빌려서 첫 할리데이비슨을 구입한 것이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된 계기입니다.

Q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할리데이비슨이냐 아니냐.”로 세상의 모터사이클은 정확히 둘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의 헤리티지와 특유의 감성은 그 어떠한 모터사이클도 흉내 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할리데이비슨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1980년식 FXS, 1981년식 FXE 두 대의 차량과 평생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Q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자주 하는 말은? ‘진정한 라이더 중 라이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Q 나에게 있어 할리란? 평생의 친구이자 내 영혼의 일부입니다.



♥ 양정일 (@1st_y) #축구 코치#Iron 883™



이정규 (@tvmc_zoomaster)
#자영업자#FXS 80 Low Rider®#FXE 1340 Super Glide®



오늘도 내일도 ‘할리’하며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할리한 흔적들을 남겨주세요.

Q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된 계기는? 속도를 즐기는 모터사이클도 많이 타봤지만, 제게는 빠른 속도보단 천천히 달리면서 풍경을 즐기고,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할리데이비슨이었습니다.

Q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매번 빠르게, 급하게 살던 삶 속에 여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쉬는 날에는 집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할리데이비슨을 타게 되며 쉬는 날에도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어 혼자서라도 밖으로 나가게 되는 활동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Q 앞으로 할리데이비슨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이언 883과 함께 제주살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캠핑 장비도 함께 챙겨서 캠핑도 해보고 싶어요.

Q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자주 하는 말은? ‘모터사이클은 위험하니 타지 말아라.’, ‘조심하게 타야 한다.’ 등 걱정해주는 말도 많지만 ‘멋있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다.’라는 등 모터사이클 라이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Q 나에게 있어 할리란? 내 삶을 즐겁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임영만 라이더

임영만 라이더를 두 번 만났다. 유튜브 촬영 일정으로 한 번. 그리고 이번 인터뷰로 한 번. 첫 번째 만남에서 느꼈던 동화 같은 기분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아내의 휠체어를 끌며 나타나는 그의 모습에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아직도 세상엔 영원히 아낄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안심됐다. 그의 아내가 맑게 미소하는 걸 보면 틀림없다.

writer 성현규 대리(할리데이비슨 코리아 PR))

photographer 류효림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임영만입니다.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고, 1948년생입니다. 할리데이비슨 트라이 글라이드 울트라(Tri Glide™ Ultra)를 타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타는 맛에 살고 있습니다.

Q 모터사이클 경력이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모터사이클을 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할리데이비슨으로 모터사이클 세계에 입문한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많은 종류의 모터사이클을 탔죠. 처음으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비포장도로를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 저거다’ 싶었죠. 이후로 다양한 브랜드의 모터사이클을 경험해 왔습니다.

Q 그중에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도 있을까요?

A 할리데이비슨은 6년 전에 스트리트 750으로 입문했습니다. 충

분히 재밌고 즐거운 모터사이클이었어요. 할리데이비슨 특유의 고동이 적당한 긴장과 설렘을 줬습니다. 원래는 기분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는 분이 더 고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을 타보라고 권유했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자 “다 됩니다”라는 담백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이후로 다양한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울트라 클래식, 슈퍼로우 등을 타봤죠. 특히, 슈퍼로우와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 주최한 백두대간 미션투어도 다녀오며 많은 추억을 쌓았죠. 결과적으로 “다 됩니다”라는 대답을 믿고 한 도전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트라이 글라이드 울트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A 이제 예전처럼 모터사이클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탈 수 있는 트라이 글라이드 울트라를 선택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내의 편안함 탠덤입니다.



아내와 저는 모터사이클 때문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이문동에서 가구점을 했고, 그때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지금의 아내였어요. 여러 사람 중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그때도 저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아내가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 아내와 나를 위해서 트라이 글라이드 울트라로 전국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이미 작년에 결혼 50주년을 기념해서 다녀오긴 했지만, 할리데이비슨으로 가고 싶어 내년에 다시 갈 겁니다. 그때를 위해 선택한 게 트라이 글라이드 울트라죠.

Q 전국투어를 앞두고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A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아직 괜찮습니다. 저는 모터사이클을 안 타면 몸이 막 아파요. 근데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오면 밥맛도 좋고 술맛도 좋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는 몸이 좀 불편합니다. 이젠 탠덤도 어렵죠. 하지만, 어렵게 모터사이클을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멋지다고 엄지를 척 올려주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아서 아픈지도 몰라요. 아내와 저 모두 모터사이클을 좋아하고 라이딩을 할 때만큼은 컨디션이 좋

은 편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A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이 오면 아내와 함께 전국투어를 갈 계획입니다. 트라이 글라이드 울트라에 탠덤하는 노후가 생겼거든요. 제법 긴 일정으로 미리 비워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기억을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인터뷰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임영만 라이더는 아내의 휠체어를 묵묵히 끌었다.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셨다.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과시하거나 과장된 몸짓과 말로 거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보면서 무리에서 가장 강한 수컷에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원초적 존경심이 생겼다. 그건, 평생을 한 여자를 지키고, 가정을 일구고, 기어코 성공한 삶을 쟁취해 낸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위대함이었다. 할리데이비슨이란 브랜드와 가장 닮아 있는 라이더 중 한 명인 임영만 라이더의 다음 여정도 기대되는 이유다. 승



HD현대오일뱅크가 만든 고급휘발유



카젠

고급을 넘어 **고성능**으로

KAZEN

HD현대오일뱅크
앱 설치하고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99%는 강한 물음표를 던질
1%에겐 가져야만 하는

모든것을 이기는 단 하나

BE THE ONE

GMC | SIERRA



EXTREME



당신의 건강·라이프 스타일 파트너, 익스트림!



2024 GRAND AMERICAN TOURINGS ARE READY



끝없는 즐거움과 감출 수 없는 존재감.
지금 가까운 지점에서 시승해보세요.



시승 지점 확인하기

Harley-Davidson® of Korea